■ 실속 재테크 불확실성시대 투자상품 뭐가 좋나

안전하고 수시 현금화 가능한 CMA·RP 등 단기상품 매력

단기 부동자금이 800조원을 넘어섰고 상장사들의 현금성 자산이 80조원에 육박하는 등 시중 자금이 단기상품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모든 투자처가 불안해지면서 돈을 둘 곳이 없어 단기상품에 몰렸지만 요즘에는 투자기회를 노리기 위한 정거장으로 단기상품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유동성자산 40%, 정기예금 등 확정형 상품 30%, 나머지 투자 상품 30% 등으로 여전히 현금에 우선을 둘 것을 권하고 있다.

단기상품의 장점은 '치고 빠지기'가 가능하다는 것. 시장 상황을 보다가 즉각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때문에 단기상품 운용은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해야 한다. 자금 운용기간과 목적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단기 상품으로는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을 비롯해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6개월 미만 은행신탁, 종금사의 발행어음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고객예탁금 등을 꼽을 수 있다.

CMA와 MMF가 대표적인 단기 투자처로 자리 잡고 있지만 만기가 6개월이 안 되는 예금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안정성과 유동성이 장점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1개월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2%, 3개월짜리는 2.6%다. 1개월, 3개월짜리 예금은 그만큼 환금성이 좋기 때문에 곧바로 목돈을 꺼내 유망 투자처로 옮길 수 있다.

CD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CD 30일짜리 금리는 2%, 60일짜리는 2.2% 정도의 저금리여서 예전만한 흡입력은 없다. 하지만 10억원 이상 목돈이라면 30일짜리가 2.5%, 90일짜리는 3.1%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CD는 실물을 구입할 수도 있고 통장식으로 거래할 수도 있다. 다만 만기 전 중도해약이 안되는 만큼 팔려면 타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금보험료(0.2%)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만기가 같은 정기예금보다 다만 몇 %라도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증권사나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RP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훌륭한 단기 투자처다.

보통 만기가 1~3개월로 짧기 때문에 단기 자금을 굴리기엔 제격이다. 만기가 짧은 채권을 모아 부정기적으로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MMT)도 있다. MMT는 은행이 고객의 돈을 금융회사의 발행어음(CP)과 같은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최저 가입 금액은 1천만원 정도다. 수익률이 MMF보다 높지만 현재는 매물이 없다는 게 흠이다.

광주은행 PB센터 상무점 정순자 부부장은 "단기간이지만 예금이나 CD에 자금을 묶어두기보다는 CMA, RP, MMF처럼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투자처가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RP(환매조건부채권)=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환금성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CD(양도성예금증서)=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MMF(Money Market Funds)=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초단기금융상품.

▲CMA=어음관리계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도 한다.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CP나 양도성예금증서(CD)·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

올 여름 수영복 패션 2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열리고 있는 '수영복 페스티벌' 매장에서 여성 고객들이 수영복을 살펴보고 있다. 올 여름엔 패션연출이 가능한 '선드레스'를 수영복 위에 걸쳐 입는 스타일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 도심 밤거리에 LED 경관조명등

광주시내 도심 밤거리에 LED 경관 조명등이 설치된다.

광주시 동구청은 26일 "광산동 구시청 사거리 일대에 'LED 경관조명등'을 설치해 밤거리를 밝고 세련되게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구청은 이를 위해 1억3천900만원을 들여 다음달 초까지 그랜드호텔~구시청 사거리~대동약국, 시민한의원 등 아시아 음식문화의 거리(690m) 일대에 높이 4.2m의 LED 경관조명등 21개를 설치한다. 〈사진〉

이번에 설치되는 LED 경관 조명등은 전통 건축 양식의 처마 형태를 취하고 있다. 흰색 뿐만 아니라 노랑, 파랑, 빨강 등으로 색상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공 및 제작을 맡은 ㈜오픈테크놀러지 고재하 선임연구원은 "원하는대로 색상과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시시각각 색깔을 바꿔가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신 금리 6개월째 하락

지난달 은행권 예금과 대출 금리가 6개월째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확대되면서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 추세가 5개월 만에 멈췄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40%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996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주택대출 금리가 5.30%로 0.13%포인트 하락하는 등 가계대출 금리가 5.50%로 0.1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5.72%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5.38%로 0.07%포인트 내렸지만, 대기업대출 금리는 5.59%로 0.01%포인트 올랐다.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2.88%로 0.09%포인트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치 기록을 갈아 치웠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2.86%로 0.05%포인트 하락했고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2.91%로 0.17%포인트 급락했다. /연합뉴스

정규 - 비정규직 임금 격차 줄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6일 작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性)·연령·학력·경력·근속연수가 같다고 가정할 때 동일한 직장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12.9%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 15.2%보다 2.3%포인트 축소된 수치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총액 격차는 300인 이상 사업체가 30.5%, 100~299인 사업체는 24.5%, 100인 미만 사업체는 6.6%로 나타났다.

2007년 임금총액 격차와 비교할 때 각각 1.3% 포인트, 1.4% 포인트, 3.5% 포인트 줄었다. /연합뉴스

국민주택·전력산업 기금 운용 '낙제점'

국민주택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쌀소득변동보전직불기금 등의 지난해 자산운용 성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반면 국민연금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정보통신진흥기금·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등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운영부문에서 83개사업 29개기금, 자산운용부문에서 36개기금에 대해 2008년도 기금운용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대형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이 총 79.05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국민주택기금은 42.6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자산운용 계획과 집행은 물론이고 운용성과에서도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연합뉴스